

단국대학교의 사례

Case of Dankook University

김 호 정 / 단국대학교 건축학전공, 교수
Kim, Ho Jeong /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al Studies, Dankook University
hojeong_kim@dankook.ac.kr

단국대학교는 클라우드 기반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등 언택트 교육 혁신에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화기획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학팀이 협력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수 역량과 학습 역량 모두 높이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별도 교육이나 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하드웨어 측면에서 단국대학교는 11.5억여 원 투입하여 ‘클라우드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하고 웹서버 12대, 40테라바이트 규모의 클라우드 서버를 확보하였다. 2020년 여름 방학 동안에 CANVAS LMS로의 플랫폼 교체가 이루어졌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 전반적인 기능개선과 플랫폼 고도화를 추구하였다. 단국대학교가 연간 개설하는 강의는 약 5천여 강좌이다. 이 가운데 기존에 온라인 강좌는 2%를 넘지 않았으며, 주로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개설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의 확대와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불과 반년 전엔 100여 개 남짓의 온라인 강좌 개설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모든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새로이 오픈된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학습관리시스템 (LMS)에서는 일반 이러닝 캠퍼스의 기능이 강화되어, 다양한 OS와 멀티디바이스(모바일,패드 등) 서비스 제공, 표절 방지시스템 연동, 구글 클래스룸 연동, 모바일 전용 앱 및 알림 기능, 팀 프로젝트 지원, 자유로운 토론 및 실시간 대화 기능 등이 추가되었다.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콘텐츠관리시스템이 시스템 내로 추가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프리젠테이션, 화면녹화, 방송형 강의에 대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졌고,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져서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정보화기획센터는 오는 8월 18일부터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구글 클래스룸, 무제한 이메일·구글 드라이브 등이 가능한 G-Suite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2020년 4월 실시한 스마트 캠퍼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단국대학교는 대학 교육이 이제 더 이상 페이스 투 페이스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교훈을 발판으로 디지털 기반 자동녹화강의실 및 능동형 강의실(ALC)로 개편하고 있다. 자동녹화강의실은 강의실 자체에 녹화·편집시설이 내장돼 강의를 그대로 온라인 콘텐츠화한다. 여름 방학 중 총 30여 개의 강의실을 구축했고, 2단계로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의 방법인 능동형 강의실(ALC)도 치과대학에서 운영된 바 있다.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로 알려진 치과대학 치의학과 박정철 교수는 구글 미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집에서 원격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봉합을 선보였다.

비대면 시대의 대학 공간 : 단국대학교의 사례

ALC강의실은 크롬북 80여 대가 설치돼 있고, 사다리꼴 모양의 책걸상 구조를 갖춰 학생 간 팀워크도 편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지원해 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하여 대학의 교육혁신은 더 빠르게 다가올 전망이다. 기존의 현장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혁신을 만들어 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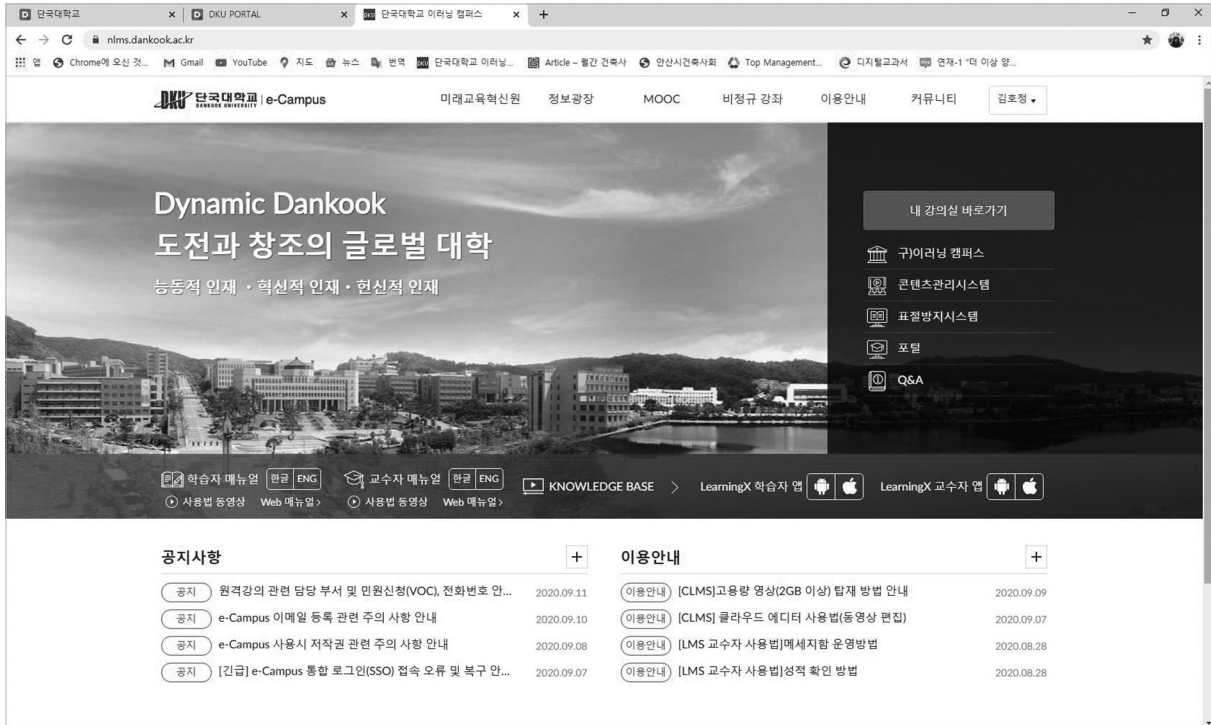


사진 1. 단국대학교 클라우드 기반 학습관리시스템



사진 2.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능동형 강의실(ALC)